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6년 6월 ~7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CODEX, 기생충, 살모넬라, 지침, 소독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주요 키워드 :

CODEX, 기생충, 살모넬라, 지침, 소독 등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2014. 11. 3.
CODEX, 살모넬라균과
기생충에 대한 연구 착수

2016. 3. 25.
미국에서 살모넬라균
식중독 발발, 전국 확산

2016. 6. 27.
이탈리아 로마에서 제
39회 CODEX 총회 개최

2016. 6.28.
살모넬라균과 기생충에
대한 신규 지침 발표

핵심이슈
도출

“CODEX, 살모넬라균과 기생충에 대한 신규 지침 발표”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CODEX, 살모넬라와 기생충에 대한 신규 지침 발표

2016년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총회에서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와 식품매개 기생충에 대한 신규 지침을 발표하였다. 지침은 현재 WTO에서 승인된 국제 표준 규정에 추가되어있다.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균 지침은 돼지고기와 쇠고기의 생산 및 가공에 적용될 수 있는 27 단계의 조치로 구성되어 있다. 가공 과정에서는 사람의 개인 위생과 처리장 바닥의 배수시설, 소독 장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총회에서 상정된 또 다른 안건은 식품매개 기생충에 대한 안전 지침으로, 식품 가공에 이용될 수 있는 동결, 열처리, 건조, 고압처리 등의 가공 방식에 대한 관리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농장에서 사육하는 식용 가축의 감염 방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CODEX의 발표에 따르면 매년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살모넬라균과 기생충으로 인한 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며, 식품과 유해 병해충의 종류가 많아지면서 확산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살모넬라와 기생충에 대한 이번 지침 발표로 CODEX는 즉각적이면서 장기적으로 공공보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CODEX는 보건위생을 위해 식품산업 종사자들의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앞으로 식품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CODEX는 각국 정부에 권고될 수 있는 식품 기준을 개발하고, 국제적인 표준 조정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유럽과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국의 규정에 CODEX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식품수출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CODEX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CODEX의 신규 지침은 각국 정부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 살모넬라균 및 기생충의 경우 식품가공 시설 및 방역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식품안전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신규 지침은 FAO-CODEX의 하기 웹사이트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http://www.fao.org/fao-who-codexalimentarius/roster/detail/en/c/429346/>)

본 보고서의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임을 밝혀야 합니다.